

아시아인이 바라보는 아시아

애플문화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등
25일까지 문화전당서 130점 전시
임종진 북녘사진전·애플 아카이브전도
전시작 등 1천여점 홈페이지에 공개

아시아 각국의 사람과 풍경,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아시아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조망하는 이번 전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록 유산을 남기는 작업이다.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11일부터 25일까지 국립사이문화전당 메이커스페이스 커뮤니티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상작과 함께 아시아 문화인류 아카이브 사진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13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은 1063점의 출품작 가운데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42점으로 수백수천의 색깔을 지닌 아시아의 역사, 민속, 문화유산, 자연, 의식주 등을 포착한 작품들이다.

대상(상금 300만원) 수상작은 최요한의 '그늘진 관광'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촬영한 코끼리 관광의 이면을 들여다본 흑백 연작이다. 특별상을 수상한 '각양각색의 삶'(윤은준)은 베트남 호치민의 건물 풍경을 찍은 작품이며 '강가'(이은정)는 인도 바라나시 강변에 몸을 담그고 명상하는 이의 모습을 앵글에 포착했다.

그밖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만난 여성의 모습을 담은 'The old wedding dress'(임리 아르피안도), 인도네시아의 카와이엔 풍경과 노동 현장을 담은 '화산 속의 노동'(박재웅), 베트남 나트랑 칸호아 수산시장의 유쾌한 작업 모습을 담은 '수산시장의 얼음 작업'(윤위정), 몽골 유목민의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담은 '유목의 전설'(이형덕) 등 우수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주제전인 아시아문화인류 아카이브 사진전 '아시아-in'은 아시아의 다양한 표정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다. 카자흐스탄 탐갈리 암각화, 몽골 하늘신 탱그리나 탱그리, 한민족의 시원으로 알려진 바이칼 호수와 사면, 남아시아 부르나이의 금빛 수상가옥 등 다채로운 풍광을 앵글에 담았다. 또 팔레시아 소수민족의 의상 등 각 아시아 각국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 대상작 최요한 '그늘진 관광'(부분)은 태국 코끼리 관광의 이면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무릇족의 전통춤'



임종진 작 '북녘 풍경'

의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사진 등도 눈길을 끈다.

특별 초대전으로 열리는 '임종진 북녘사진전'도 인상적이다. '사는 거리가 똑같디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6차례 방북 취재에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남쪽 사진가'로 불린 임종진(주 공감이야 다표)전 사진기자가 촬영한 북한의 평범한 시민들 모습이다.

철봉 아래에서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아이들, 대동강변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아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재잘거리며 걷는 소녀 등이 앵글에 담겼다.

한편 11일 커뮤니티라운지에서는 사진전 개막식과 함께 수상자 시상식이 열렸다.

공모전 홈페이지(www.asiaphoto.kr)에서 1000여점의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상우씨 광주시전 한국화 대상

'민화' 대상 서양회씨...비엔날레 전시관 26~30일 전시

제31회 광주미술대전에서 한상우(광주)씨의 '희망'이 한국화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또 올해 새롭게 신설된 민화 부문에서는 서양회(전남)씨의 '노장 탈춤'이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박수봉)가 주관한 제31회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이 입상작이 11일 발표됐다. 올해 공모에는 한국화, 공예, 디자인, 문인화, 서양화, 조각, 수채화, 미디어 사진 등 모두 11개 부문에 1739점이 접수됐다. 지난해 1557점보다 180점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11월 24일 열린 1차 심사와 지난 6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2차 본작품 심사 결과 수채화 부문에서 최정애(광주)씨의 '그날', 문인화 부문에서는 이점자(광주)씨의 '청영요풍', 한문 서예에서는 박상숙(광주)씨의 '백강선생시'가 대상을 차지하는 등 모두 5개 부문에서 대상 수상자가 나왔다. 최우수상은 '일상'을 출품한 서양화 부문의 김려원(광주)씨 등 10명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의 입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심사위원들은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서 대전의 변화된 분위기와 인기를 실감했으니 무기명투표, 심사과정 활용 등을 늘려주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대회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



한상우 작 '희망'

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전시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분야별 최우수상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한국화-김배중(광주) '신사의 추억'

▲서예-오창림(남, 제주) '춘계문답2'

▲서각-이필영(전남) '화이부동'

▲민화-박미정(광주) '춘일계관도'

▲디자인-장성호(광주) 'water course 광주시립국제수영장 버스정류장'

▲공예-인영희(전북) '모란이 피기까지2'

▲미디어 사진-최희영(광주) 'fit in the mirror'

▲미디어 사진-최인옥(광주) '기쁨'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

모스크바 푸슈킨 미술관 명작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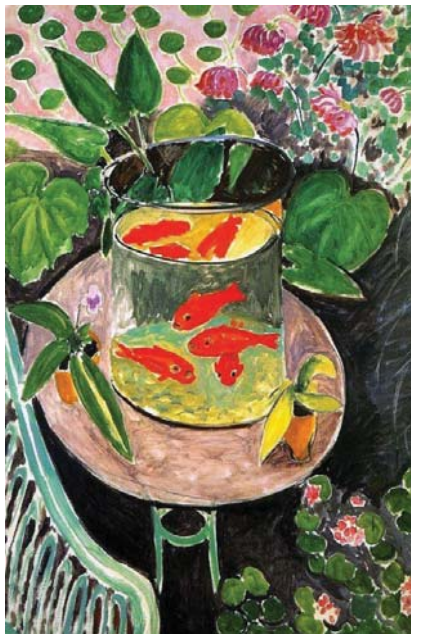
인문지행, 16일 광주극장

시민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진행하는 세계 미술관 명작 감상 프로그램 '문화예술 기획' 12월 행사가 오는 16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에서는 모스크바 푸슈킨 미술관의 명작들을 감상한다. 1912년에 완공된 푸슈킨미술관은 모스크바 대학 부설기관으로 있다. 1932년부터 푸슈킨 미술관으로 바뀌었으며 서유럽 고전회화에 서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감상할 작품은 모네의 '하얀 수련'과 '폴밭 위에서의 점심식사', 르누아르의 '검은 옷의 소녀들', 고희의 '붉은 포도밭', 고갱의 '왕의 부인', 피카소의 '유대인 노인과 소년', 마티스의 '금붕어' 등이 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



앙리 마티스 작 '금붕어'

다. 인문지행: http://cafe.daum.net/h-arete.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김미은 기자 mekim@

전시로 전하는 따뜻한 연말 진한미술관 12일까지 광주·부산 35명 참여



이영애 작 '을숙도'

연말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진한미술관은 오는 12일까지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와 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35명의 작가가 서양화·한국화·조각·사진 등 다채로운 작품을 출품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이영애(예당 아트갤러리 관장) 작가는 부산 을숙도의 풍경을 표현한 유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장애라 작가는 붉은 빛의 화사한 장미꽃다발을 화폭에 가득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 이마옥 작가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늦가을 풍경을 담은 '만추'를, 정철 작가는 뱀발에서 일하는 이

의 모습을 담은 '바다와 여인'을 출품했다.

그밖에 고현주 작가는 수채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터'를, 김금란 작가는 새초롬한 소녀의 모습을 담은 청동조각 '그리움'을 내놓았다.

그밖에 김성숙·박상호·양준호·유태환·이근호·유형민·신경자·정운태·정준표·주미희·황경숙 작가 등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진한미술관은 매년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자선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0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서는 지난 8월 열린 자선전에서 모은 수익금을 미술관이 위치한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문의 062-222-007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